

중기부, ‘SVC’ 실리콘밸리 출범… 연 200개사 美 진출 지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한벤투·중진공·창진원·기보 입주
韓 스타트업 20개사도 함께 상주
현대차·네이버·아산나눔 등 협업
향후 日·싱가포르에도 추가 개소
미국 HP와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국내 ‘HP Garage 2.0’ 운영 추진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종합적으로 돕는 첫 글로벌 거점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SVC)’가 문을 열었다. 민관이 힘을 합친 미국 SVC에는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20개사가 입주한다. 또 현대차, 네이버, 아산나눔재단이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교류, 투자, IR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매년 200개 이상의 한국 벤처·스타트업과 VC 등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등 글로벌 혁신거점에 SVC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오른쪽 4번째)과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왼쪽 4번째)가 9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개소식’에서 관계자들과 커팅식을 하고 있다. /중기부

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비롯해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입주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 김남선 네이버 전략투자부문 대표, 정호근 현대차 부사장 등 국내·외 기업인, 투자자와 관계자 등 2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SVC를 열기 위해 지난 2년간 민간 전문가와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입주 지원기관과 현지 진출해 있는 민간 기관·기업과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공유, 투자협력 등을 협의하며 준비해 왔다.

실리콘밸리 SVC는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그동안 분산된 중기부 해외거점들을 처음으로 통합하고, 현재 국내 17곳에서 운영중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해외에 설치한 첫 사례다. 벤처·스타트업과 VC 등이 중장기 미국진출 및 단기 출장시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도 제공한다.

개소식에선 입주 지원기관간 MOU뿐

만 아니라 입주 지원기관과 아산나눔재단, 네이버, 현대차 간 협력 MOU, 한국벤처투자과 네이버 간 MOU를 체결해 향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노용석 1차관은 “실리콘밸리는 매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1위로 선정되는 곳으로 글로벌 답테크, 투자자들이 밀집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이라면서 “중기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SVC를 중심으로 한인 창업가 커뮤니티와 협력해 국내

창업생태계 확장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VC 업무공간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VC 등은 이달 중 새로 여는 SVC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기업의 경우 중진공, VC 등은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에 각각 문의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노 차관은 같은 날 HP 본사를 방문해 데이빗 맥쿼리(David McQuarrie) 비즈니스 총괄 책임자(CCO)와 면담을 갖고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을 통해 양측은 ‘AroundX 프로그램’을 통해 AI 분야 및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함께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창진원과 HP가 ‘AroundX(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HP는 1939년 빌 휴렛과 데이브 팩커드가 팔로 알토의 차고에서 HP를 창업한 ‘HP Garage’ 정신을 계승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HP Garage 2.0’을 운영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프렌치 카리스마’ 장착… 푸조, 디자인 혁신

올 뉴 3008, 8년 만에 풀체인지
패스트백 루프 적용… 공력성능 강화
사자발톱 DRL·파노라믹 아이-콕핏
디자인 디렉터 “차별화는 디자인”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디자인은 브랜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디자인을 둘러싸고 호불호에 대한 갑론을박을 이어간다. 즉 차량의 디자인은 소비자의 첫인상과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뛰어난 성능을 갖춘 모델이라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출시와 함께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델이 있다. 8년 만에 풀체인지로 돌아온 푸조의 대표 준중형 SUV ‘올 뉴 3008’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7월 국내 출시된 올 뉴 3008은 푸조의 새로운 전략인 ‘프렌치 카리스마’를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푸조 프랑스 본사에서 디자인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마티아스 호산 디자인 디렉터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올 뉴 3008의 디자인 스토리를 들어봤다. 호산 디렉터는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지금까지 경쟁이 치열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모든 브랜드가 디자인을 잘하고 차를 잘 만들기에 푸조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고민이 크다”며 “새로운 브랜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역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에 역사적 요소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레시피로 멋진 푸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푸조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HEV) 모델은 국내 출시와 함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푸조 전체 판매량을 이끌고 있



마티아스 호산 푸조 디자인 디렉터와 올 뉴 3008. /푸조

다. 7월 출시 후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진 9월 판매량을 보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51대 판매되며 푸조 전체 실적의 80%를 책임졌다.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푸조가 추구하는 미래 디자인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3세대로 진화하면서 기존 SUV 형태를 벗어나 패스트백 루프라인을 적용했다. 또 사자 발톱을 형상화한 주간주행등, 파노라믹 아이-콕핏 등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차별화했다.

호산 디렉터는 “디자인 과정에서 항상 ‘누가 이 차를 타게 될까’를 고민하는데 성별이나 연령보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상상한다”며 “3008을 디자인할 때는 아름답고 감각적인 제품을 좋아하면서도 기술에 관심이 많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이러한 이미지가 디자인 전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올 뉴 3008은 패스트백 루프라인 디자인을 적용해 공력성능을 한층 강화했다. 그는 “패스트백 실루엣을 통해 공기저항계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며 “전년 범퍼의 수직 옛지 디자인과 전체

적인 차체 라인 역시 공기역학을 고려해 설계됐다”고 말했다. 실제 올 뉴 3008은 SUV로서는 이례적인 0.28Cd라는 공기저항계수를 달성했다.

실내 디자인은 푸조의 디자인 정체성을 완성하는 곳이다. 파노라마 아이-콕핏을 최초로 적용해 운전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했으며 21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미래적인 감성과 시각적 몰입도를 높였다. 또 콤팩트 스티어링 휠, 운전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맞춰 단축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아이-토글은 미래형 조종석의 느낌을 제공한다.

호산 디렉터는 “아이-콕핏은 단순한 레이아웃이 아니라 운전의 감성을 극대화하는 경험”이라며 “실제 운전석에 앉으면 운전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조수석은 훨씬 넓고 개방적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 뉴 3008은 성공적인 2세대를 넘어 스스로를 다시 창조한 모델”이라며 “푸조의 디자인 철학 ‘매혹적인 디자인(Power of Allure)’을 가장 완성도 높게 구현한 차”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소, 外人채용 1순위 ‘출신국가·한국어 능력’

중기중앙회, 1223곳 대상 조사
97.8%, 외국인력 고용 한도 못미쳐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려하는 최우선 순위는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고용 비용과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의 절대다수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한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보다도 ‘내국인 구인난’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절대 다수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1일 내놓은 결과이다. 조사에 따르면 채용시 고려사항 ‘우선 순위’는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을 주로 꼽았다. 출신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어 소통 능력이 중요한 모습이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도 낮은 한국어 수준으로 인한 ‘의사소통’(52.1%)을 주로 꼽았다. ‘작업 지시 오해로 생길 수 있는 생산 차질’ 등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97.8%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도에 미달해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건비 이외 신청 수수료·숙식비 제공 등 고용 비용 부담(44.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 등이 주요 이유였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현대百貨 킨텍스점에 ‘코웨이갤러리’

아이콘 정수기·노블 공청기 등 전시

코웨이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7층에 브랜드 체험 및 판매 매장 ‘코웨이갤러리’를 새로 열었다.

11일 코웨이에 따르면 코웨이갤러리 현대 킨텍스점은 스타필드 고양 직영점에 이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들이 코웨이의 다양한 혁신 제품을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체험하고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신규 매장에서 슬립 및 힐링케어 브랜

드 ‘비렉스(BEREX)’의 ▲의료기기 마사지셋·코어셋 ▲트리플체어 안마의자 ▲스마트 매트리스 등 다양한 제품군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아이콘 정수기 시리즈와 노블 공기청정기 등 베스트셀러 제품뿐만 아니라 코웨이의 혁신 기술력이 집약된 신제품까지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히티브 온풍공기청정기는 깨끗한 공기에 따뜻한 온풍 기능을 더한 신제품으로, 고효율 세라믹 발열체를 탑재해 실내 온도를 약 5도 높이는 데에 단 4분가량 소요된다.

/김승호 기자